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Basic Study for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Contribution for Resolving th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이 은 철(Eun-Chul Lee)*

심 효 정(Hyo-Jung Sim)**

목 차

- | | |
|----------------------------------|----------------------------------|
| 1. 서 론 | 3.1 공공도서관과 지방재정자립도 관계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 분석 |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3 OECD 주요국의 문화기반 통계 분석 |
| 2. 지식정보격차해소와 공공도서관 | 3.4 기여도 분석 방향 |
| 2.1 개념 및 현상 | 4. 결론 및 제언 |
| 2.2 지식정보격차 현황과 도서관의 역할규명 | |
| 3.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에
관한 분석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된 지식정보격차해소의 개념 및 현황 등을 파악하고,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았으며, 기존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관계,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격차해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논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resolving th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vided as a new role of public libraries. We have examined what kind of role public libraries has to play, and hav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financial independence of public libraries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use of public libraries and the social class vulnerable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by utilizing existing statistical data. Through this, We have presented a basic point in question needed in searching for a way to strengthen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resolving th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키워드: 공공도서관, 지식정보격차해소,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정책

Public Library, Resolving of Gap in Knowledge Information, Local Cultural Infrastructure, Cultural Policy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clee@skku.edu)

** 한국도서관협회 사업협력팀장(shjcap@paran.com)

논문접수일자: 2008년 5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11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4월 5일 발효된 「도서관법」에는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부분이 새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달리 법의 목적¹⁾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격차해소 등 국가 및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함으로써 이전과 달리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 보장을 새롭게 규정하고, 정보격차해소 역할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관법」 제43조 1항에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이 그동안 정보이용과 독서진흥, 평생교육 기관에서 더욱 발전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도서관은 특히 여러 관중 중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핵심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한 정보, 교육,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모두 607개관이다. 그 중 서울특별시(69개관,

11.4%)와 경기도(117개관, 19.4%) 같은 수도권에 약 31%가 집중되어 있고, 부산광역시(27개관, 4.5%),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에 각각 16개관(2.7%)이 있어 이들을 모두 합하면 대도시에 261개관(43.2%)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이들 대도시의 1관당 인구대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여전히 공공도서관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은 그 수나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지식정보격차해소라는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전문/관리직,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의 소득층에서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문화기반시설 이용률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향수는 국민의 권리로 경제적 수준, 즉 빈부격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에서 언급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는 연령, 지역, 가구소득 등에 따라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이러한 법의 목적은 「도서관법」으로의 전면개정 이전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뿐 아니라 유네스코/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 최근 급속하고 흥미로운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수집되고 제시되며 접근되는 방법에 혁명이 일어나 정보제공이 기본역할인 공공도서관 조직의 모든 부서와 서비스전달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은 정보부문에서의 빈부격차에 대한 위험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각기 발전단계가 다른 국가들 간 문제일 뿐 아니라 한 국가 내 계층이나 집단 간, 또는 개인 간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네스코와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공공도서관이 가난한 사람들을 세계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 국제연합의 권고에 따라 이들을 세계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소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일반대중들이 접근하도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고, 문자해독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임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Gill, Philip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된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찰해보고,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관계,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격차해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논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먼저 「도서관법」에서 지식정보격차해소 역할을 규정하게 된 경과와 유네스코와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지식정보격차해소의 개념과 현상,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함을 규명하였다.

지식정보격차해소와 공공도서관에 관해서는 기존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일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관계,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관계에서는 공공도서관수와 이용자수, 1관당 인구수, 1인당 운영예산, 1인당 장서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등을 살펴보았으며,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는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과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열람책수, 대출책수, 문화행사 일회성 행사 참가자수, 문화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 움직이는 도서관 이용자수의 관계를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핵심 지역문화기반시설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공공도서관의 기여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만,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인을 제외한 이유는 「도서관법」에서 장애인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 범주가 다양해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계층별로 실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이 아니고 문헌과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통해 큰 범주에서 관련성 정도는 살펴볼 수 있었으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되지 못한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 지식정보격차 해소와 공공도서관

2.1 개념 및 현상

OECD에서는 지식정보격차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이용 능력을 기준으로 개인 간, 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지식 빈곤층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제약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식정보격차는 회사, 기관, 국가 간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성과 지식활용 능력의 불평등에 기인하며, 정보 강대국과 빈국 사이에는 2배가

훨씬 넘는 국민평균소득의 차이와 함께 그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도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정보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도시에 살고 고학력, 고소득자들은 문화적·경제적 환경에 더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선진국에서도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유무별로 격차가 존재하며, 10대 청소년층에서 정보 역기능현상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2007).

우리나라도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지식정보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2008년 2월 14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²⁾는 전국평균 53.9%로 2007년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본청(85.7%),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본청(11.0%)으로 조사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86.0%),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완도군·신안군(6.4%)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³⁾는 전국평균 79.5%로서 2007년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본청(92.0%),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 본청(33.2%)이며,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과천시(90.4%),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북구(36.4%)로 나타났다. 더불어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산 규

2)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가운데 자체조달 재원의 비중.

3)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

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총 예산 대비 0.6%에서 3.7%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기 시작해 전체 예산 대비 3%가 넘는 문화예산을 지출하는 자치단체들도 나타나고 있어 그 만큼 문화영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b 2003).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⁴⁾ 경우 2006년 12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7.6)』에 따르면 약 153만5천명(83만 2천가구), 즉 총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이 3.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라남도가 6.9%, 전라북도가 6.6%, 경상북도가 4.9%, 강원도가 4.4%순이며, 경기도가 1.9%, 서울특별시가 2.0%,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1.85%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와 가장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 2006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를 보면, 서울특별시는 107,785가구에 200,359명, 전라남도는 70,954가구에 126,3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 대상 선정가구의 소득규모는 0원 초과 - 20만원 이하는 48.6%, 2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는 18.0%, 40만원 초과 - 60만원 이하는 9.7%로 수급자 가

구의 약 49%가 20만원 이하의 소득을, 약 67%가 40만원 이하의 소득을,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7). 저소득층 가구의 특징은 남성 가구주 51.4%, 여성가구주 48.6%,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63.1%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62%가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복지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2.2 지식정보격차 현황과 도서관의 역할 규명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7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도 취약계층별 정보불평등 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취약계층 중 농어민과 저소득층의 정보불평등 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장애인과 장노년층에 비해 농어민과 저소득층내의 정보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개인의 종합 정보화 수준⁵⁾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분석하였는데 연령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학력·소득·직업·성별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⁶⁾ 취약계층별 종합 정보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분석된 연령과 학력 변인을 기준으로 각 취약계층을 세분화하여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을 측정된 결과, 일반국민 대비 종합 정보화 수준이 80% 미만 집단 대부분은 취약계층 내 30~40대 중졸이하 및 50

4)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함.

5) 접근·역량·활용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 정보화 수준을 의미.

6) 종속변인은 개인의 종합 정보화 수준의 측정요약치인 '종합지수'이며, 독립변인은 성·연령·학력·직업·가구소득·장애유무 등 6개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임. 종합지수는 종합 격차지수가 산출되기 전, 계산되는 개인의 종합 정보화 수준을 나타내는 100점 기준의 점수임.

대 이상 고졸이하 학력층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는 비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층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이용자에 비해 비이용자인 본인이 어느 부문에서 가장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측정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자료의 검색·습득'이 8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 및 학습활동'(81.4%), '구직·창업 등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7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자료의 검색·습득'이 뒤쳐진다는 응답은 고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창업 등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이 뒤쳐진다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 및 학습 활동'이 뒤쳐진다는 응답은 고학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이 지식정보격차해소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된 것은 2005년 6월 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그동안의 도서관 목적에 정보 접근권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지식정보격차해소를 도서관 설립·운영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명시하였으며, 그대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같은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법률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그 역할의 범위와 수준, 방법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서관법」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화 교육의 실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정보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도 시설과 자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와 같은 교육이나 정보설비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언급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기여도에 관한 분석

3.1 공공도서관과 지방재정자립도 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수와 지방재정자립도 관계 분석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한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2007. 12. 31 기준)』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공개시스템(<http://lofin.mogaha.go.kr>)에서 공개한 2007 지방재정자립도 등과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2007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표 1>과 같이 서울특별시(90.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20.1%)로 조사되었다. 서울특별시 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88.0%), 가장 낮은 지역은 노원구(28.8%)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양시(46.6%), 가장 낮은 지역은 보성군(8.3%)으로 조사되었다(행정자치부 2007).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와 가장 낮은 전라남도 자치구 두 지역의 공공도서관수와 재정자립도 관계를 분석해보았다. 자치구별로 좀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의 경우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2개관, 시·도 소속 공공도서관이 8개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노원구의 경우 교육청 소속 평생학습관 1개관, 시·도 소속 공공도서관 3개관이 있다. 강남구에는 주로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여러개 있고, 노원구에는 강남구에 비해 도서관은 적지만 강남구보다는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광양시의 경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시·도 소속 공공도서관이 각각 2개관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성군의 경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2개관, 시·도 소속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1개관 있어 공공도서관의 수와 규모는 두 지역간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2 참조).

위와 같이 자치구별로 세분화해 분석했을 때 서울특별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 다수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

은 지역에는 큰 규모의 도서관이 소량 있었으나 전라남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나 낮은 지역 간에 도서관 수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치구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시·도 수준으로 분석해보면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는 총 69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에는 총 50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우선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이 있고, 재정자립도도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같은 대도시들의 경우는 오히려 이들 광역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공공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공도서관의 숫자만으로 지방재정자립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나 다음 <표 1>을 보면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청의 『2007 사회통계조사』 결과에서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도서관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권 기초현황조사』에서 공공문화기반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의 경우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지역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앞에서 본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와 노원구의 비교분석, 전라남도의 광양시와 보성군의 비교분석 결과

〈표 1〉 16개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현황과 재정자립도

시 도	도서관수 (개)	인구 (명)	1관당 인구 (명)	재정 자립도 (%)	지자체의 복지예산 (%)	운영예산 (천원)	1인당 운영예산 (원)	1인당 장서수 (권)
서울	69	10,192,710	147,720	90.5	4.3	70,350,628	6,902	0.68
부산	27	3,587,439	132,868	62.9	5.1	24,983,042	6,964	0.87
대구	16	2,493,261	155,829	63.9	4.6	21,795,630	8,742	0.96
인천	16	2,664,576	166,536	69.8	3.8	14,732,823	5,529	0.73
광주	13	1,413,444	108,726	54.2	2.6	14,197,330	10,044	1.14
대전	16	1,475,659	92,229	72.1	5.2	15,466,774	10,481	1.19
울산	8	1,099,995	137,499	68.4	5.0	7,370,400	6,700	0.74
경기	117	11,106,211	94,925	74.9	3.2	113,274,711	10,199	1.13
강원	44	1,503,806	34,177	28.3	2.2	21,000,216	13,965	2.14
충북	28	1,506,608	53,807	33.3	5.3	17,356,591	11,520	1.39
충남	46	1,995,531	43,381	36.9	5.6	18,378,667	9,210	1.50
전북	38	1,862,277	49,007	23.5	3.8	17,796,528	9,556	1.32
전남	50	1,929,836	38,597	20.1	9.0	20,731,496	10,743	1.80
경북	53	2,681,364	50,592	28.9	7.1	38,105,258	14,211	1.44
경남	45	3,196,953	71,043	39.1	5.9	33,892,212	10,601	1.22
제주	21	559,258	26,631	26.4	4.7	8,147,839	14,569	2.58
계 및 평균	607 (계)	49,268,928 (계)	81,168 (평균)	53.6 (평균)	5.8 (평균)	457,580,145 (계)	9,287 (평균)	1.11 (평균)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07.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2007.12.31. 기준)』과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재정공개 시스템.” [cited 2008. 5. 1]. <<http://lofin.mogaha.go.kr>> 및 이중섭. 2008.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15: 118 참조.

처럼 시·도 차원의 큰 범주의 분석결과와는 다른 분포로 나타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율도 〈표 1〉을 참고해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예산의 4.3%를, 경기도는 3.2%를 차지하는 반면 전라남도는 9.0%, 경상북도는 7.1%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복지예산 비율도 대체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의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도 〈표 1〉을 참고해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가 많이 분포하

고 있는 반면 1인당 도서관운영예산이나 1인당 장서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낮게 나타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와 도서관 이용자수와의 피어슨 상관분석도 해 본 결과 〈표 3〉에 보듯이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도서관 이용자수도 많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강남구, 전라남도 광양시와 보성군의 재정자립도 및 공공도서관 현황

지역	재정자립도	교육청 소속	시·도 소속
서울특별시	강남구	88.0%	강남도서관 개포도서관 논현도서관 대치도서관 청담도서관 논현문화정보마당 정다운도서관 즐거운도서관 행복한도서관 역삼도서관
	노원구	28.8%	노원평생학습관 노원정보도서관 월계문화정보도서관
전라남도	광양시	46.6%	광양시립중앙도서관 광양시립도서관
	보성군	8.3%	보성공공도서관 별교공공도서관 보성농어촌도서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07,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2007.12.31. 기준)』과 행정안전부, 2007, “지방재정공개 시스템.” [cited 2008, 5. 1]. <<http://lofin.mogaha.go.kr>> 참조.

〈표 3〉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이용자수의 상관관계

항목	상관분석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재정자립도	표본상관계수	0.5695117
	t 통계량	2.5924
	자유도	14
	유의확률	0.02*

* $p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함. 표본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선형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재는 척도임. 표본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표 1〉에서 〈표 3〉까지의 내용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수는 더 적고 도서관 이용자수는 더 많은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를 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1관당 봉사대상인구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반면 1인당 도서관운영예산이나 1인당

장서수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낮게 나타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근거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가 낮은 지역에 대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이 더 많이 지어지고 복지예산도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한 경우이지만, 도서관의 이용자수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는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도서관 운영예산, 장서수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도 아직도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르고 통계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 국민들의 체감정도는 다른 것으로 보아 각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 분석

앞에서는 공공도서관 현황과 재정자립도와 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도서관은 지식정보취약계층(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를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토대로 분석해보았다. 다만 앞에 연구범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은 제외하고 각 지역의 65세 이상의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4〉와 같이 도서관 1관당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라남도과 경상북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1관당 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북도가 높게 나타났

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1관당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특별시보다 전라남도가 2.7배 정도 높다. 1관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서울특별시보다 전라남도가 3.3배 정도 높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전라남도 같은 지방도시에는 잠재적 도서관 이용자 중 노인인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용자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다.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도서관 이용률이 높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상대적으로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많은 전라남도 지역과 적은 서울특별시 두 지역간의 도서관 이용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정계층의 이용자가 많고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열람책수 비율이 대출책수 비율보다 훨씬 높았고, 전라남도는 열람책수와 대출책수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화행사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일회성 행사의 참가자수가 많고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가 일회성 행사 참가자수보다 훨씬 많았다. 움직이는 도서관의 경우도 서울특별시보다 전라남도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서 수치만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좀 더 확인해보고자 65세 이상의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과 공공도서관의 활용도(이용자수, 열람책수, 대출책수, 문화행사 일회성 행사 참가자수, 문화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 움직이는 도서관 이용자수)의 관계를 피어슨 상관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공공도서관 활용도 추정

시도	노인 인구 비율 (%)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비율 (%)	이용자수 (명)	열람책수 (권)	대출책수 (권)	문화행사 일회성행사 참가자수 (명)	문화행사평생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수 (명)	움직이는도서관 이용자수 (명)
서울	8.3	2.0	36,892,535	35,287,575	12,971,365	749,454	695,795	75,498
부산	9.6	3.8	13,805,943	16,808,630	5,437,714	235,152	173,104	53,070
대구	8.9	3.7	7,881,215	6,338,091	3,626,303	235,854	192,638	161,737
인천	7.7	2.6	8,994,815	7,718,581	3,856,191	105,877	158,445	73,754
광주	8.1	4.3	5,032,066	4,391,809	2,291,624	25,745	72,547	74,712
대전	7.7	3.1	5,696,330	6,662,256	2,919,891	170,701	141,361	65,376
울산	6.0	1.8	4,532,975	4,581,924	2,050,985	75,510	92,080	189,044
경기	7.8	1.9	49,059,307	53,612,827	26,116,984	557,135	550,232	439,549
강원	13.4	4.3	5,693,986	6,125,882	3,778,079	162,968	266,162	116,225
충북	12.4	3.8	5,246,666	3,581,687	2,672,513	35,000	91,821	54,540
충남	14.3	3.9	5,286,886	3,648,014	3,385,819	102,246	348,102	87,058
전북	11.8	6.4	7,247,325	4,456,477	3,216,741	61,891	96,090	71,263
전남	22.7	6.5	7,869,192	6,232,009	4,080,632	69,065	311,695	241,870
경북	14.6	4.8	8,178,702	5,295,545	4,931,943	76,904	165,823	108,045
경남	11.1	3.4	11,151,999	10,148,426	7,115,303	185,673	160,039	83,798
제주	11.0	4.0	2,067,754	2,066,060	1,260,730	59,156	48,461	41,011
계	9.9	3.1	184,587,696	176,955,793	89,712,817	2,908,331	3,564,395	1,936,550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07.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2007. 12. 31. 기준)』과 행정안전부 2008. “주민등록인구 현황(2007. 12. 31기준)”과 보건복지부 2007. 『2006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6. 12. 31 기준)』. 참조
 * 노인인구비율: 각 지역 노인인구 수/각 지역 전체인구 수 × 10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각 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각 지역 전체인구 수 × 100
 *** 각 지역 노인인구 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참조, 각 지역 전체인구 수는 〈표 1〉에서 제시한 숫자를 활용하였음.

먼저 65세 이상 노인비율과 1관당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수, 열람책수, 대출책수 간의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 세 지표 모두 음의 상관관계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비율과 1관당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수, 열람책수, 대출책수 간의 상관분석을 해 본 결과도 세 지표 모두 음의 상관관계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비

율과 일회성 행사 참가자수와의 상관분석에서 음의 상관관계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비율 및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비율과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자수나 1관당 움직이는 도서관 이용자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용자수, 열람책수, 대출책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표 5〉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간의 상관분석

구분	상관 분석	1관당 공공도서관 이용자수	1관당 공공도서관 열람책수	1관당 공공도서관 대출책수	일회성 행사 참가자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수	1관당 움직이는 도서관 이용자수
65세 이상 노인 비율	표본상관계수	-0.83871	-0.8418562	-0.8715155	-0.3728401	-0.03984926	-0.4680235
	t 통계량	-5.7626	-5.8364	-6.6499	-1.5034	-0.1492	-1.9816
	자유도	14	14	14	14	14	14
	유의확률	<0.01**	<0.01**	<0.01**	0.15	0.88	0.07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	표본상관계수	-0.6643725	-0.6947834	-0.7176095	-0.5558163	-0.3453713	-0.3380032
	t 통계량	-3.326	-3.6145	-3.8554	-2.5017	-1.377	-1.3438
	자유도	14	14	14	14	14	14
	유의확률	<0.01**	<0.01**	<0.01**	0.03*	0.19	0.20

* p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함. ** p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함.
 표본상관계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로 이들 계층이 도서관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인지, 접근성이 떨어져서인지 본 분석에서는 명확한 결과를 밝힌 순 없지만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움직이는 도서관과도 상관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의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정도가 부족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들 계층의 공공도서관 활용도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우리나라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계층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은 도서관 이용에 있어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층이나 노인층은 도서관 이용에 있어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 OECD 주요국의 문화기반 통계 분석

2006년 8월에 연구된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률의 경우 2002년~2005년까지의 유효통계를 기본으로 볼 때 국민 전체의 총량으로서 방문객수는 1위 일본, 2위 미국, 3위 영국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2005년도 기준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위 일본, 2위 스웨덴, 3위 영국, 4위 한국, 5위 미국 순으로 나타난다.

도서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7개국을 비교하면 1천명 당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1위 영국, 2위 일본, 3위 중국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이용률과 도서관 가입자 수의 순위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 가입자는 일반 방문객에 비해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 이용 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전체 방문객수 및 방문회수 모두 1위이고, 도서관 가입자수는 2위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1인당 도서관 방문횟수가 11.24회로 월 1회 정도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 문화향유만족도 등도 알 수 있는데, 일본 국민들은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교양을 넓히는 등 삶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문화기반부문 한국의 문화기반의 경쟁력은 문화여가에 대한 정부지출이 9개국 중 6위, 공공도서관의 숫자는 10개국 중 9위,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 수는 11개국 중 7위이다. 한국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수는 최하위권이지만 도서관 방문객 수는 평균에 이르고 있어 문화경쟁력에 있어서 잠재력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공공도서관은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하나로 비영리, 공익시설이기에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도서관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문화기반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높아질 것이다.

3.4 기여도 분석 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한 지식정보

격차해소에 관한 부분에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많고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이들의 정보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층별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고 평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를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계층별로 나누고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역사회 거주민들의 인구통계정보(지역사회 거주민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수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지역 내 단체 및 상업 정보, 도서관 영향권, 지역의 교통 패턴, 지역 내 다른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정보, 교육 및 문화서비스의 양적·질적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계층별로 공공도서관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 어떤 부분을 포함시켜야할지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환경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향력 평가 지침을 공공도서관의 영향력 평가 지침으로 응용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력 평가는 국민들 전체의 삶이 균형 있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의 정책, 제도 및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경제성 측정을 통한 방법도 가능하다. 경제성은 공공도서관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이용자집단에 대한 편익분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편익분포, 도서관 편익

과 사회경제적 인구통계사이의 관련성 등을 측정해 재정투자를 보다 정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웨일즈 등에서 사용하는 문화지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⁷⁾ 문화지표는 지역 문화 및 지역문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의 실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식정보격차해소와 공공도서관에 관해서 기존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일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관계,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관계에서는 공공도서관수와 이용자수, 1관당 인구수, 1인당 운영예산, 1인당 장서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등을 살펴보았는데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더 많이 지어지고 복지예산도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

한 경우로 보여진다. 그러나 도서관의 이용자수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비율로 보았을 때는 대도시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도서관 운영예산, 장서수는 낮게 나타남으로써 인구가 많은 대도시엔 아직도 더 많은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르고 통계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 국민들의 체감정도는 다른 것으로 보아 각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정보취약계층과 공공도서관 활용도 관계 분석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인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와 1관당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수, 열람책수, 대출책수 간의 상관분석을 해본 결과 세 지표 모두 음의 상관관계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용자수, 열람책수, 대출책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지식정보소외계층에서 도서관의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들 계층과 공공도서관의 활용도는 낮

7) 영국 웨일즈의 문화지표를 보면 전략/정책결과, 자원이용, 서비스접근, 서비스전달/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도서관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전략/정책 부문은 인구 1,000명당 참여율, 대출수, 인터넷 접속수, 자원이용 부문은 인구 1,000명당 여가문화예산, 도서관의 이용자당 비용을, 서비스접근 부문은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가구의 비율, 자신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여가 문화시설에 만족하는 주민비율, 체계적인 여가문화활동에 참가하는 주민/가구 비율을, 서비스전달과 질 부문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이용자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여러 문헌 분석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공공도서관은 경제적 수준, 빈부격차에 따르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지역의 핵심문화기반시설로서 여러 관종들 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한 정보, 교육,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사실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계층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연령, 지역, 가구 소득 등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 도서관의 노력만으로 어렵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는 다른 행정과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거나 협력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영향력 평가, 경제성 측정, 문화지표 개발 등을 통해 지식정보격차해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지식정보격차해소와 관련한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해 적절한 방식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반면 개별 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격차해소 활동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이들 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법률에서도 보장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확보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부문 등에서도 같이 민간부문에서의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유관 기관이나 이 부문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도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만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공공도서관의 여러 구성요소들과 지역의 문화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해 실제 설문조사를 병행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지역핵심문화기반시설로 인정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기여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가인권위원회. 200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권 기초현황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2007. 『2007년말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예산처 지방재정공개시스템. 2006. “지방결산규모” [cited 2008. 5. 1].

- <[http://lofin.mogaha.go.kr:8100/settle/gyummo/Sumup_T04\(Jipyo01_A\).jsp](http://lofin.mogaha.go.kr:8100/settle/gyummo/Sumup_T04(Jipyo01_A).jsp)>.
 기획예산처 지방재정공개시스템. 2007. "서울시 예산개요." [cited 2008. 5. 1].
 <http://www.seoul.go.kr/seoul/summary/estimate/intro_2006.html>.
 기획예산처 지방재정공개시스템. 2007. "전라남도 재정고시." [cited 2008. 5. 1].
 <http://jeonnam.go.kr/kr/greenjn/greenjn_sub.jsp?MID=A030505>.
 대한민국정부. 2007. 『국가재정운용계획』. 서울: 대한민국정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2006 문화향수 실태조사』.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007 여가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007 문화예술통계』.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사회연구소. 2003. 『경기도 문화지표 개발 및 표본지역 조사연구』. 서울: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2003. 『문화영향평가제도연구』. 서울: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경기문화재단. 2007.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 문화사회연구소, 경기문화재단.
 법제처. 2007. 『도서관법』. 서울: 법제처.
 보건복지부. 2007.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결과 공개토론회』. 서울: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용중. 2006. 문화분야 자원배분의 국제비교 『한국문화경제학회』, 2006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15.
 이소연. 2008. 마케팅기법을 적용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기획. 『2008 경기도도서관 정책개발 작은 세미나』: 9-19. 경기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이중섭. 2008.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15: 95-128.
 정보격차해소연구센터. 2007.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현황』.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용완.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67-186.
 통계청. 2007. 『2007년 사회통계조사결과』. 서울: 통계청.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a.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b. 『주요 외국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OECD 주요국가의 문화경쟁력 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국민 여가지표 개발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2007 정보격차 지
수 및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
흥원.

행정안전부. 2008. 『주민등록인구현황(2007. 12.
31기준)』. 서울: 행정안전부

Elliott, Donald S., Glen E. Holt, Sterling W.
Hayden and Leslie Edmonds Holt. 2007.
Measuring your library's valu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Eurostat. 2007. *Eurostat pocket books: cul-
tural statistics*.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 2008. *The life of woman and men
in europe*. European Communities.

Gill, Philip. 2001.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
ment*. IFLA.

OECD. 2006. *Factbook: Economic, Environmen-
tal and Social Statistics-Population and
migration-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in migration*. OECD.

Imholz, Susan and Jennifer Weil Arns. 2007.
Worth their weight. Americans for
Libraries Council.

Welsh Assembly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Wales. 2008. "Local
government dataunit wales."
[cited 2008. 4. 29].
<<http://www.dataunitwales.gov.uk>>.